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4호 [부제 제25763호] 주제 106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천백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위대한 승리를 더욱 빛내여나가자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 시, 군들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해무역 건설 구상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군민경축대회가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지방 당, 정권기관, 군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장군들, 각계 총대장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를 참가하였다.

대회장들은 당시 명도따라 최강국의 존엄을 또다시 떨친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암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천백배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위대한 승리를 더욱 빛내여 나갈 활기찬人们的 혁명적 열의로 세계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표명되었었다.

개천, 구성사, 고원, 대단군 군민경축대회에서 연설자들은 사회주의 최후승리에奔고하는 주체식 핵무기의 창업적 희생은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분신천이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이 이렇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위업을 성도해나가고 있는 가을 보여준 특대사연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조국의 강대성과 불가항력적 지위를 만방에 펼쳐주시고 주체혁명 위엄의 승리적 전진과 천만년 미래를 양쪽 깊이 담보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미국과 적대세력을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제재와 압박을 다하였지만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초강도 폭발력을 가진 디젤원형 핵무기를 마음껏 운용해 방어 단체에 냉혹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핵보검을 풀어세워 끌어 놓았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당시 명도따라 병진의 기지를 더 높이 추구하고 새기와 새대를 이어온 반제반미 대결정을 풍물 전하고 사회주의의 마지막 전승선을 향하여 흥울격, 흥매진해 나갈 걸의 물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으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투지를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연설자들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

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뼈에 새기고

천길 밤길의 성세, 망해가 되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당조직들이 당시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들을 철

저히 관찰하기 위한 당조직성치사업

을 혁명적으로, 풍성으로 벌여나갔

으며 세 당의 민음직한 국방과학원사

들이 말휘한 뚜껑기총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임상대회, 자력갱생의 위력을

국가경쟁에 맞추어 5개년 철학수행을

위한 전민총동력전을 강화해 전개

나갈 걸의 물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으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투지를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으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투지를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으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투지를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으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투지를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으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투자를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으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투자를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으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투자를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힘이 풍성한 혁명적 풍랑을

넘쳐 사회주의의 위엄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감을

태양의 축복 속에 빛을 뿌리는 주체미술교육의 전당

평양미술종합대학의 70년 역사를 돌아보며

평양미술종합대학이 창립 70돐을 맞이하였다.

주제 36(1947)년 9월 10일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아래 자기의 첫걸음을 맨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수많은 미술인재들을 키워내어 주체에 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여온 이 대학의 자랑한 행로를 우리 인민은 깊은 감회속에 풀어가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교하시었다.

『평양미술대학은 주체미술교육의 전당입니다.』

혁명의 년대를마다 우리 당의 혁

미술교육에서 주체를
인간생활에서나 사회발전에서나 미술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예술창작사업은 물론이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과 창조와 진실의 그 어느 분야든지 미술이 안착되지 않은 것인가 사실상 없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해방후 평양미술종합대학의 전신인 평양미술전문학교가 창립되었을 때까지만 하여도 교원들은 교육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제 37(1948)년 1월 어느 날 학교교장은 불가까이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제과 미술부분에 끼친 바에 따른 미술부분의 교육사업과 민족문화건설에 적극 이바지 할수 있는 세동능있는 미술가들을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극상에서 위어난 미술가를 기위내는 것이 미술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미술교육의 진로는 그야말로 교육자를 의 심장에 불을 달이주었다.

미술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을 뼈대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술인재를 기위내는 대학에서 먼저 사대주의, 조선주의, 민족주의로써의 유통성을 강하게 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교육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었다.

이렇게 되어 주제 43(1954)년은 평양미술종합대학에 있어서 주제를 확립하기 위한 주제가 있음으로써 미술사조들이 벌랄 때에도 불우의 고전적로 작

『미술론』을 발표시켜 미술교育을 주제사실주의로 전개하였다.

주제미술교육발전의 성스러운 년

들이 새겨지는 나날이 평양미술종합

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가슴마니에는

미술작품을 봐온 주제미술

교육의 생명선이라는 철의 정리가 깊

『황일빨찌신영용들』도 있다. 황일혁명선렬들의 영웅적도정신을 적극 따라해 올데 대하여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교에서 종자를 잡은 교원들은 당인의 원정이 낮아 조각창작에 지장을 받게 되자 비단을 파내고 심혈을 기울여 절대 완성한 것이다.

당파 수령의 사상과 뜻에 대한 사고하고 실천해나가는 대학의 교원, 학생들은 교육사업과 학파학습에서 아니라 창작에서도 이처럼 고집한 충정심을 발휘하였다.

우리의 미술교육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두정은 문학에 습의 전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 밖에 다른 결론을 내짚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신념과 의지가 그토록 비견유희『1949년 7월의 만수대인력』을 보아주시면서 깊이 있는 작

물리라고 주제미술을 유화에 잘 담았다는 분에

넘침 치하의 교시를 주시았다.

1950년대 고난의 경애, 강행군

시기에도 신념의 봉대를 얹게 되어

위기 번창이 당을 반드시 놓는 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대학에서 훌륭한 작품을 창작

이 새겨져게 되었다. 하기이 1990년 대초 자본주의가 북극판 나바풀에 서 로동계급의 수령의 업적이 말살되고 있을 때 대학의 교육자들은 국가미술전람회들에 수령형 미술작품들을 밟아는 커다란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역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이 되어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신념과 의지가 그토록 비견유희『1949년 7월의 만수대인력』을 보아주시면서 깊이 있는 작

물리라고 주제미술을 유화에 잘 담았다는 분에 넘침 치하의 교시를 주시았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평양미술종

종합대학의 교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대경축국가산업기술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하였을 때에는 교원

들이 창작한 작품들이 모두 잘된 것은 그들이 미술기술기증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1990년대 고난의 경애, 강행군

시기에도 신념의 봉대를 얹게 되어

위기 번창이 당을 반드시 놓는 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대학에서 훌륭한 작품을 창작

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신 후우 장군님이시였다.

대학은 주제 96(2007)년 8월 21일 주체미술교육의 강령적지침을 받아온 당은 당과 수령을 반복 전시하여 일련단식 당과 수령을 받았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신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의 교원,

학생들의 신념과 의지가 그토록 비견

유희『1949년 7월의 만수대인력』을 보아주시면서 깊이 있는 작

물리라고 주제미술을 유화에 잘 담았다는 분에

넘침 치하의 교시를 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평양미술종

종합대학의 교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대경축국가산업기술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하였을 때에는 교원

들이 창작한 작품들이 모두 잘된 것은 그들이 미술기술기증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투자기지로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밀에 발전하여온 평양미술종

합대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

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

<p

이런 일본새가 산림복구전투승리를 담보한다

덕천시 일군들의 사업에서

온 나라에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세계에 퍼오르는 속에 덕천시의 산림복구전투장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인의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 올해까지 당시 세시한 산림복구전투표를 점령 할 수 있는 확고한 계략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시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유훈관찰전, 당정체옹위전에 철학자나 산림복구전투장을 일관성 있게 밀려온 파병에 이룩된 성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만들어 조선은 결실하면 반드시 한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산중의 도서로 불리우는 덕천시는 도적으로 산림면적이 많은 시, 군들중의 하나이다.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일

씨기 어버이 수령님께서 시에

찾아오시어 산리용만을 내오도록 하시고 주변의 산들에 나루를 많이 심어 대하여 주민 유출을 생겨난으로 풀어 놓았고, 산림조성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한창을

에 그처럼 많은 동방나루를 보

내주면서도 나루심기를 중단

이내밀고 산림조성을 찰하여

사실 산림부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무보를 생산

한다는 것은 결코 험한 일이 아

니었다.

하지만 당시 미리는 높이에서

놓고 놓고 때 아직도 해야 할 일을 많았다.

산림복구전투로 부른 당의

호소를 듣자고 시의 책임일군

들은 앞으로 조성해야 할 산림면

적들을 하나하나 로해하였다. 따

서보니 조성해야 할 산림복구면

적만 해도 수천평보다 되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부 일군들에서는 시의 지나

시기의 경험대로 하면 얼마든지 다른 시, 군들보다 산림복구전

투표를 먼저 수령할 수 있다고

히시며 미리의 탐색을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당정책을 어찌

나라와 평정에서 어떻게 결사관

철해야 하는가 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시의 책임

일군들은 이미 이북한 성파에

도대하여 산림조성을 한두해사

이제는 이를 끌어올려 쟁심하였다. 그

렇게 하자면 산리용만의 로력만

으로는 나루보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시인의 모든 가정들에서

나루보를 일상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다.

조국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은 당의 요구이다.

이렇게 문제를 세

단결의 힘은 그 무엇으로도 당해낼수 없다

역사와 민족앞에 만고대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여 민심의 종업현심만을 받고 피고석에 앉아 초췌한 물풀을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역도나 그 일당에 대한 날조선 각계의 항법과 증오심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한때 박근혜를 등에 업고 옷깃 뒤집어쓰다 하던 측근들개들이 풍물가 유리피장을 받으면서 보수계당의 박근혜적성 폐는 어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폐당의 거친한 물을 지켜보며 날조선인민들은 전화의 악력부터를 자신의 몸으로 떠서의 실란대에 끌어들여온 것과 얼마나 성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짚고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힘은 끝 단결의 위력이다. 풍진에 승리하고 뛰어들면 끝 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지난해에 날조선에서 박근혜역도의 폐대형정치 추문사건이 되자 나오면서 가족수녀와 애녀를 펼친 위력을 자세히 물어내기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燔불평이 시작되었다. 날조선전력을 휘둘른 소부불평은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으며 폐국과 만연에 미처 남비는 역적무리를 단호히 징벌할수 있는 결정적 힘은 인민대중의 단결에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었다.

처음 수단명으로 출발한 날조선인민들의 소부불평은 박근혜역도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연 1 600만명 이상의 남녀로소가 참가한 그야말로 칭송행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해 날조선인들은 1 3 0여일 동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탄핵으로 떠어진 소부불평을 그 창가자수에 있어서 사장 최대 기록을 남기었고 평하였다.

돌이켜보면 날조선의 력대 반역통치 배들의 기구한 운명에는 떨리는 풀수 없는 법칙이 있다. 그것은 민심을 통지

고 외세의 존과 파쑈독재, 동족대결에 미쳐남비민자들은 누구라 한것없이 본노한 인민들의 단결된 투쟁에 의해 비참한 풍물을 고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손에 묻은 주구였던 피증만의 도의 독재『정권』은 4. 1 9인민봉기에 의해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렸고 포악무도한 박근혜역도의 『유신정권』도 1 0 월인 주항행에 4. 1 9인민봉기에 살벌한 죽임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살길을 머물수 없으며 단결하여 일떠서면 그 어떤 독재자도 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질겁한 박근혜에도 수많은 경찰무력을 풍に向여 살벌한 죽임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살길을 머물수 있으며 후방악하였다. 6월인민항쟁과 그에 이은 각계층 인민들의 죽기 전 민주화투쟁으로 『5·15』, 『6·15』부족세자들의 『문민』과 쿠데타 무력을 끝까지 꾸미었지만 사실은 또다시 드러났다. 하루를 통해 대체로 래워버렸듯이 무섭게 이끌려가는 힘의 불길은 그 무엇으로 박근혜제당을 넘어서 박근혜를 풀어놓았다. 차운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마지막을 물어쉬고 있는 박근혜역도를 걸고 제자리를 채우고 있다.

역암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는 법이다.

날조선인민들이 초燔불평에 떨쳐나선 것은 외세에 아부종종하면서 쿠데타와 반민적악정, 동족대립 등을 일삼아온 박근혜제당에 대한 죽어가고 있는 박근혜역도와 피증보수당을 영영 배제하기 위한 각계층 인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폭넓은 단결을 이루어내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체리사례와 통족대결, 북침전쟁을 선동하면서 채집권을 품

우쟁만이 살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완강한 초燔불평으로 정의는 죽어로도 끝을 수 있으며 단결하여 일떠서면 그 어떤 독재자도 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인민들의 투쟁기세에 질겁한 박근혜에서도 수많은 경찰무력을 풍に向여 살벌한 죽임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살길을 머물수 있으며 후방악하였다. 6월인민항쟁과 그에 이은 각계층 인민들의 죽기 전 민주화투쟁으로 『5·15』, 『6·15』부족세자들의 『문민』과 쿠데타 무력을 끝까지 꾸미었지만 사실은 또다시 드러났다. 하루를 통해 대체로 래워버렸듯이 무섭게 이끌려가는 힘의 불길은 그 무엇으로 박근혜제당을 넘어서 박근혜를 풀어놓았다. 차운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마지막을 물어쉬고 있는 박근혜역도를 걸고 제자리를 채우고 있다.

날조선인민들은 체리사례와 통족대결, 북침전쟁을 선동하면서 채집권을 품

우리가 미국의 가증되는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대북간판도로 캐드장착용 수소탄시험을 단행한것을 계기로 피뢰들이 마치 물본 미친개마냥 날뛰고 있다.

하지만 피뢰들이 미국의 꼬투리가 되어 삼진의 복침전쟁장단에 합부로 총을 주다가는 엄청난 세단밖에 끌려울것이 없다.

우리의 단호한 군사적타격이 시작되는 순간 대북간판도로 캐드장착용 수소탄시험을 단행한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우리가 미국에 대한 군사적대응에서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 간주하면서까지 남조선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

상진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수 없다는것은 세계가 놓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들을 보고 대북전략자산들의 날조선전체를 요청한다 어쩐다 하며 본주장을 피워대고 있다.

이것은 통족에 대한 극단적인 저대감에 쩔고 있어 취하고 있는 조강경대용조치들에 흥미백산하여 본토방위에 금급하고 있는 미국이 한가하게 대북수단을 둘둘 여유가 있겠는가.

미국이 대북 한 민족적통일을